

합평군 '귀농·귀촌 서울농장' 무산 책임 논란

군수 출마자 등 일부 정치인 "군 의지 부족으로 예산 반납" 郡 "사유지 비싸고 임대 조건 까다롭다며 서울시가 포기"

합평군이 귀농·귀촌 사업 일환으로 서울시와 손잡고 추진하려던 '서울농장' 사업 무산을 두고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합평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추진했던 서울농장 조성사업이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무산된 것일뿐 합평군의 사업 의지 부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박래우 더불어민주당 합평·영광·장성·담양 수석부위원장의 출마기념회에서 이석형 전 합평군수(현 산림조합중앙

회장)가 서울시와 합평군이 추진하려 했던 '서울농장 조성사업' 결렬을 '예산 반납'이라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합평군은 지난 2014년 12월 합평읍 옛 석성초등학교 폐교부지 등에 서울농장(체험농장)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MOU를 서울시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합평군 소유 폐교부지(6503㎡·감정가 4억2000여만원) 등을 매입하기 위해 19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합평군은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폐교부지 매각 조건으로 폐교부지 인근 부지 1만㎡(사유지 등)를 서울시가 취득하고 서울시는 귀농·귀촌하려는 서울시민에게 5년 이상 농지로 임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내세웠다.

이에 서울시는 사유지 매입 비용이 부담되는 등 폐교부지 매각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결과적으로 지난해 4월 서울농장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이와 관련 합평군수 선거 출마자 등 일부 정치인들은 최근 출마기념회 등에서 "합평군의 의지 부족으로 귀농·귀촌 사업인 서울농장이 무산됐고 예산 반납이 이뤄졌다"며 합평군의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평군 관계자는 지난 14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울시가 폐교부지에는 주로 숙박시설을, 인근 사유지에는 체험농장을 조성하려다가 사유지가 너무 비싸고 5년 이상 농지 임대 조건이 부당하고 주장해 협상 과정에서 서울농장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며 "합평군의 사업 의지 부족 때문에 사업이 무산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 입장에서 폐교부지를 팔면 군 재정에 도움이 되지만, 체험농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군으로서 큰 이익이 없다"며 "합평군 예산이 반납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합평=황운학기자 hwang@



곡우사리 영광굴비축제 홍보·준비 박차 영광군 4월 20일부터 3일간...여기 대회·경매 행사

올해부터 '굴비축제'(사진)의 축제명을 '곡우사리 영광굴비축제'로 바꾸기로 한 영광군이 외부 관광객 유치와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에도 24절기 중 하나인 곡우(4월 20일) 때 굴비축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2016년 '영광법성포 곡우사리 굴비축제'로 처음 시작된 굴비축제는 행사 당일 4월 20일을 '굴비먹는 날'로 지정하는 등 축제 성공에 주력했다.

영광군과 군의회, 한빛원전 후원으로 3일간 치러질 곡우사리 영광굴비축제는 '어머니와 굴비이야기'를 주제로 개최될 계획이다.

특히 '굴비'가 명명된 지 892년을 맞은 4월 21일 축제 기념식에서는 지역 여성들이 892마리의 굴비를 엮어 갈대아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또 무료 시식과 굴비 직접 구워 먹기, 굴비 여기 대회, 굴비 경매 등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한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합평군 농업기반 건설공사 관계자 회의

합평군이 기계화 경작로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에 대한 건설공사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15일 합평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건설공사 관계자 회의에서 현장별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공사 중 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요령과 건설시공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합평군 관계자는 "영농기 이전 조기준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며 "건설시공과 품질·안전관리 등의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합평=황운학기자 hwang@



신안군 17~18일 한국난명품전국대회

한국춘란 전국 최고의 자생지인 신안군에서 '한국난명품전국대회'가 열린다.

신안군은 17일부터 이틀간 신안군 압해읍에 위치한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제 27회 한국난명품전국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시·도별 한국난문화협회 주관하고 한국난문화협회 전남협회와 신안난연화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총 1000여점의 한국춘란이 출품된다.

군은 이번 전국대회 개최를 계기로 명실상부 한국춘란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애란인의 위상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전시장에서는 난세미나와 난를 리니, 한산연 난판매전 등도 마련돼 난에 관심있는 이들의 정보교환은 물론 난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무안·신안지역 농지은행사업비 171억원 확보

농어촌공사 작년보다 19억 늘려...청년 창업농 집중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지사장 조영호)가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지난해보다 19억원이 늘어난 171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인 농지매입사업에 34억원을, 장기임대사업은 19억원, 농지매입비축사업엔 47억원을 확보했다.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수탁사업으로 285ha를 시행하고 경영회생사업도 4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에 6억원, 경영이양지불사업으로 13억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청년 창업농업 성장에 집중 지원하고 20·30세대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까지 포함해 '관심-창업-성장-은퇴'로 이어지는 농업인의 생애주기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

농업인이 농지를 우선적으로 취득 및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젊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영호 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는 "농업인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맞춤형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주도 성장과 고령 농업인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사 농지은행부(061-260-5531, 061-260-5521~22)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신안=이상선기자 sslee@

무안군 '군민 취미교실 프로그램' 12개 운영

무안군은 군민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한 취미생활을 위해 무안군 문화의 집에서 '2018년도 군민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5일 무안군에 따르면 개강 프로그램은 지난해 7개 프로그램에서 올해는 12개 프

로그램으로 확대돼 상반기(3월~8월)에 8개 반 하반기(9월~11월) 4개 반으로 군민의 관심이 많은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요가와 춤바댄스, 노래교실, 탁구교실은 3월~5월에 운영되며 한국사바로알기, 언어스피치, 바리스

타, 멀티우드는 6월~7월에 클라리넷, 가족공예와 홈페인, 켈트는 10월~11월에 운영하며, 군 홈페이지(www.muang.go.kr)를 통해 모집 운영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의 문화 욕구가 충족 되길 바라며 군민이 만족하고 소통하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지난 12일 불갑면사무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은영(맨 왼쪽)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장과 배정환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 배정환군, 어린이재단 '나눔실천상'

영광 불갑면 배정환 군이 어린이재단에서 수여하는 '나눔실천상'을 수상했다.

나눔실천상은 어린이재단에서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눔 활동을 성실히 실천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가 큰 유공자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동전을 모아 기부활동을 한 배정환 군이 그 주인공이 됐다.

김은영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장은 "22개 시·군 중 중학생이 나눔실천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수사례로 알릴 계획이다"며 "그동안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이나 캠프를 영광 지역에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장기투자 가치 좋습니다, 회사 사정상 매매함, 010-3605-5000

<h3>덕남동 -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0만원 ■ 일사불대폭 조정가 	<h3>비금도,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무인도)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있음 ■ 교환가능(현금3억+기타부동산) ■ 매매 - 14억 (대출3억포함) 	<h3>거문도, 토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접, 전망 좋음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h3>중동, 근린상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시 중동 1888-1 (라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 좋음 ■ 매매 - 11억 (조정가)
---	--	---	---